

기혼취업자의 여가제약유형에 따른 여가활동참여의 차이

Differences in Leisure Participation by Types
of Leisure Constraints for Married employee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김외숙*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박사수료 박은정**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Professor Kim, Oi-Sook

Dept. of Consumer &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

Doctoral Candidate Park, Eun Jung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 고찰	V. 결론 및 논의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ime pressure and financial burden have been reported as the main constraints on leisure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 typology of leisure constraints,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constraint types, and analyze the differences in leisure participation by the types of leisure constraints for married employees.

The data source for this research was the 2009 Time Us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Married employees aged 20 to 59 years completed 13,476 time diaries (7,984 for male, 5,492 for female), which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cluster analysis, and ANOVA analysis.

Leisure constraints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in two categories, working time per week and personal income for both males and females respectively. The three types for both males and females were *time-income constraints*, *income constraints*,

* 주저자: 김외숙(E-mail: kimos@knou.ac.kr)

** 교신저자: 박은정(E-mail: dana060107@naver.com)

and *general constraints*, with an additional type for men, *time⁺-incomeconstraints*, and an additional type for women, *time constraint*. The most common type was general constraints, for both males and females. Each type was further differentiated by the following socio-economic variables: age, educational level, job type, and weekly day-off. The study found that participation in study, sports, and religious activities varied with the types of leisure constraints.

Key Words :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 여가유형(leisure typology),
여가활동(leisure activity), 여가참여(leisure participation),
기혼취업자(merried employee)

I. 서론

현대사회에서 여가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개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가가 단순한 휴식의 기능을 넘어 건강 증진 및 자아실현, 행복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여가시간의 확보 및 여가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일과 여가 사이에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국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19.3%에 불과하고(통계청, 2012) 문화체육관광부(2012)의 국민여가활동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여가생활에 불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이 41.7%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조사에 따라 차이를 보여 통계청(2012)의 조사에서는 경제적 부담(60.9%)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시간부족(23.2%)인 것으로 보고된 반면 문화체육관광부(2012)의 조사에서는 시간부족(48.2%)이 가장 높고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경제적 부담(39.9%)이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비록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시간부족과

경제적 부담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제약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즉 충분하지 않은 여가시간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알 수 있다.

하루 24시간의 한정된 시간은 한 가지 활동에 사용하면 다른 활동에 사용할 양이 감소하는 *zero-sum*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여가시간은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40시간 근무제는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 증가에 긍정적 변화를 주고 여가생활만족도와 더불어 주관적 행복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유선, 2011).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 회원국 중 장시간노동 1위국의 위치를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OECD, 2011) 주4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비율인 장시간노동빈도도 49.5%로 페루(50.9%)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ILO, 2007). 또한 서울지역 근로자들의 주당평균근무시간은 50.8시간으로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10시간 이상 초과하고 있고 78.3%가 일과 삶의 불균형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경제투데이, 2010).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2011년 현재 우리나라 GNP는 23,749달러로 2만달러를 넘어섰지만, 여가지출비는 GDP의 3.7%로 비교가능한 통계가

있는 OECD 17개국 중 16위(OECD, 2008)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비용지출은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간적, 경제적 조건의 미비는 대표적인 여가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여가생활의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여가생활을 위한 시간부족과 경제적 부담은 직장인(김성희·이철원, 2003; 전태준·이철원, 2003; 송원익, 2004; 윤소영·문숙재·유수현, 2005), 성인(여성부, 2002; 여성가족부, 2005; 박지수·박경란, 2009), 노인(홍성희·김성희, 1997; 이영숙·박경란, 2009), 주부(김외숙, 1991; 홍성희·문숙재, 1991; 정탁, 2005), 학생(진규태·김우성, 2008; 이석훈·김재운, 2012) 등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가활동참여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학술적으로 볼 때 여가제약의 연구는 여가참여가 어떻게 제약되는지 그 복잡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여가참여, 여가동기, 여가만족의 문제를 재조망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Jackson, 1991). 뿐만 아니라 일상적 여가활동이 형성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고 여가선택과 경험의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며(Jackson, 1990; 이승구, 2002; 이훈 외, 2004) 실천적인 관점에서 누가, 왜, 상대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이해하고, 그 결과 여가제약의 영향을 감소시키도록 여가관리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점(김외숙, 1991)에서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여가제약연구 중에는 여가제약요인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합하여 주부들을 유형화한 후 여가활동 참여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홍성희·문숙재, 1991)도 있으나 주로 연구대상별로 여가제약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여가제약이 여가활동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여가제약과 여가활동참여

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밝혀왔다. 즉 대표적인 여가제약의 두 요소인 시간과 소득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제약요인들이 어떻게 유형화되고 여가제약의 유형별로 여가활동참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여가제약요인을 기준으로 여가제약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이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여가제약유형에 따라 여가활동참여가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성인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시간적 제약을 크게 받고 있는 기혼취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자료는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여가제약의 개념과 요인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s, leisure barriers)이란 사회심리적 의미에서 개인의 여가행동을 “제한하는 힘”으로 경험되는 내적인 심리상태나 특성 또는 성격과 외적인(대인적 및 상황적)환경을 의미한다(Lewin, 1951). 이러한 여가제약은 여가선호와 여가참여 사이에 존재하는 대처할 수 없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 선호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Crawford & Godbey, 1987). Jackson(1988)은 여가제약이란 여가의 참여와 즐거움을 억제 또는 방해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이 가정하거나 개인들이 지각하는 요인으로 규정하였다. 고동우(2007)는 여가활동의 기회만이 아니라 경험의 제한에 대한 것도 여가제약의 문제로 규정하였으며 여가제약의 경우 여가동기는 활성화되었으나 여가활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기회는 있으나 여가체험을 내재적 보상으로 얻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여가제약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장애로 존재하기 때문에(Jackson, 2000) 여가제약의 제거는 여가경험에 대한 만족 수준을 증가시켜준다(Iso-Ahola & Mannell, 1985).

여가참여에 대한 제약의 개념적 모델로서 최초의 것은 Iso-Ahola가 개발한 것이며, Iso-Ahola와 Mannell이 이를 확장하였다. Iso-Ahola(1981)는 제약의 개념을 검토할 때 우선 주의해야 할 점으로 제약이 주관적이고 심리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제약은 개인이 그것을 제약으로 지각할 때 제약이 되며, 따라서 여가제약이라는 주제는 심리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Iso-Ahola와 Mannell(1985)은 여가제약을 개인적, 사회문화적, 물리적 요인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능력, 적성, 태도 및 동기의 부족 등으로, 사회적 요인은 사회규범, 역할, 의무,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과 양 등으로, 그리고 금전, 시설, 기회, 시간 등을 물리적 요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모델은 개인 중심으로 가족을 관심의 단위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Crawford와 Godbey(1987)는 이 모델은 개인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설정함으로써 제약이 개인을 넘어서, 즉 가족의 맥락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으며, 여가제약을 선호와 참여 사이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설정하는 점에서도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rawford와 Godbey(1987)는 여가제약을 여가에 대한 선호와 참여 사이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보았고, 여가제약을 개인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의 3가지로 구분하여 개념화하였다. 개인적 제약은 여가선호와 참여 사이에 매개되는 것이 아니라 여가선호에 작용하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특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의기소침, 분노, 광신, 특정여가활동에 대한 이전의 사회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적성과 이용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이다. 대인적 제약은 사람들의 특성들 사이

의 관계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이 제약은 결혼 관계에 내재되어 있고, 따라서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공동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적 제약의 산물이거나 배우자 간의 상호작용 결과 나타나는 제약이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제약은 여가선호와 참여 사이에 매개되는 요인으로 가족생활주기, 가족의 경제적 자원, 계절, 기후, 취업, 시간, 기회의 접근성(그리고 그러한 접근성에 관한 지식), 특정 활동에 대한 적성에 관한 증거집단의 태도 등이다.

여가제약의 초기연구에서는 여가제약이 항상 여가참여를 막거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았으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여가제약은 협상 또는 극복 가능한 관점의 결과들이 제시되었다(Crawford, Jackson, & Godbey, 1991; Jackson, Crawford, & Godbey, 1993; Jackson & Rucks, 1995; Hubbard & Mannell, 2001; Loucks-Atkinson & Mannell, 2007; 김경식·황선환·원도연, 2009; 황선환, 2009; 백주하, 2011).

Crawford 등(1991)은 여가제약요인의 세 가지, 즉 개인적 요인, 대인적 요인, 구조적 요인들이 순차적, 혹은 위계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생긴 다음부터 실제로 참여 여부까지의 과정을 고려하여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제약요인이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약은 개인적 제약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입되는데, 만약 대인적 요인이 여가참여를 제한한다면 개인은 대인관계를 조정하고 절충하는 대화와 타협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여가활동의 구조적 제약이 있다면 여가참여는 요원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상위의 제약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부요소를 극복하였다 하더라도 특정 여가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Jackson 등(1993)은 Crawford 등(1991)의 위계적 여가제약 모형을 수정하여 여가제약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타협과정을 제안하였다. 즉

사람들은 타협이 불가능하나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대인적 또는 구조적 제약에 마주치게 되면 피드백을 통해 그러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하게 되면서 선행적인 개인적 제약에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여가제약이 협상과정을 통해 극복 가능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들(Jackson & Rucks, 1995; Hubbard & Mannell, 2001; Loucks-Atkinson & Mannell, 2007; Son & Mowen & Kerstetter, 2008; White, 2008)이 진행되었다. 여가제약은 협상전략을 유발하여 제약을 극복하여 여가참가를 증가시키고, 여가제약협상이 여가제약과 여가참가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Hubbard & Mannell, 2001; 황선환·서희진, 2009).

한편 여가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가제약을 연구한 김외숙(1991)은 여가장애를 여가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힘으로서 개인에게 지각되는 개인적, 환경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장애를 요인분석을 통해 시간장애, 비용장애, 개인적 장애, 가족적 장애, 사회적 장애로 구분하였다. 홍성희와 문숙재(1991)는 개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자원의 정도에 의해 설명될 수 있고, 이 자원들은 시간, 금전, 공간으로 요약되며, 이 세 가지 자원이 개인의 여가시간 분배 및 활동참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여가제약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윤소영과 그의 동료들(2005)은 여가제약을 여가에 대한 선호와 참여사이의 관계의 맥락에서 본 Crawford 등(1991)의 견해를 따라 여가제약요인을 내적 제약요인, 대인적 제약요인,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규정하였다. 이영숙과 박경란(2009)은 여가제약을 개인의 여가활동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요인으로 정의하고, 여가제약을 요인분석을 통해 사회적 제약, 개인적 제약, 가족적 제약, 경제적 제약으로 구분하였다. 2000년 후반 이후 여가제약에 대한 협상과정이 소개된 후 여가제약협상에 대한 연구(김경식·황선환·원도

연, 2008; 황선환, 2009; 최성훈, 2010; 백주하, 2011)가 점차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여가제약 협상 전략 척도의 개발과 적용(김경식 등, 2008), 여가제약과 여가제약 협상 및 여가참가의 관계 분석(황선환, 2009),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성훈(2010)의 여가동기와 여가제약 및 여가제약 협상전략 분석, 백주하(2011)의 여가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여가제약이 여가제약협상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여가제약연구가 발전하고 있다.

2. 여가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여가제약은 다양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요인에 따라 관련변수의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시간제약과 경제적 제약의 분류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들 두 가지 제약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두 가지 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직업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우선 성별을 보면 연구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상이한 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성별에 따라 여가제약에 따른 차이가 보고되고 있다. 여가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여가제약을 연구한 백주하(2011)는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 시간적 제약 등의 구조적 제약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윤소영 등(2005)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구조적 여가제약(시간제약, 경제적 제약, 정보와 자원 등)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수와 박경란(2009)은 중년후기 성인의 여가제약 연구에서 총 여가제약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용적, 신체적, 사회적, 가족적 하위 제약유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중년후기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여가활동비의 부족과 신체적 제약을 더 높게 지각하였고,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여가시설부족과 가족의 이해부족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시간적, 금전적 여가제약 요인 인식정도에 따른 성별차이를 분석한 박형석(2011)의 연구에서 시간적 제약에서는 성별차이가 밝혀졌으나 금전적 제약에서는 차이가 밝혀지지 않았다. 시간적 제약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여성으로서 가사를 담당하며 직장여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취업주부들에게 있어서는 여가시간부족이 큰 제약 요인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소득에 따라서도 여가제약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그 결과는 연구대상에 따라 다르다.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제약 연구(김외숙, 1991)에서 가계총소득은 시간장애와 개인적 장애를 제외한 비용장애, 가족적 장애, 사회적 장애의 지각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차이를 보인 세 유형의 장애지각정도는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소득이 높을수록 비용장애, 가족적, 사회적 장애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탁(2005)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득이 높을 경우 경제적 제약과 개인적 제약이 낮게 지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년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지수·박경란, 2009)에서도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가제약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성희와 김성희(1997)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소영 외, 2005)에서는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구조적 여가제약(시간 제약, 경제적 제약, 정보와 자원 등)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비용제약, 가족적 제약, 사회적 제약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선아, 2007). 본 연

구에서는 소득을 여가제약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하였으므로 여가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는 제외하였다.

연령을 살펴보면, 도시기혼여성의 연령을 20대, 30대, 40대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제약의 정도를 분석한 김외숙(1991)의 연구에서는 시간제약에서 연령별 차이를 보여 20대집단이 가장 많은 제약을 느끼고 40대이상 집단이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정탁(2005)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시간적 제약 외에 경제적, 개인적, 환경적 제약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의 여가제약을 분석한 송원익(2004)의 연구에서는 20대집단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내재적 제약(시간부족, 일에 얽매임 등)과 구조적 제약(경제적 여유, 정보와 자원 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외숙(1991)의 분류에 기초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령별 차이를 분석한 윤선아(2007)의 연구에서도 35세미만 집단이 40세이상 집단보다 시간적 제약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연령이 적을수록 시간적, 경제적 제약을 많이 느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년후기 성인의 여가제약을 분석한 결과(박지수·박경란, 2009)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여가제약을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노인의 여가제약을 분석한 홍성희와 김성희(1997)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후기 또는 노년기에 다양한 사회심리학적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연령의 효과가 직선적인 방향이 아닌 점과 유사하다. 따라서 연구대상으로 포함하는 연령대의 범위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여가제약을 높게 지각하는 결과(김외숙, 1991; 홍성희·김성희, 1997; 박지수·박경란, 2009)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제약을 높게 지각하는 결과로 구분된다(윤소영 외, 2005; 정탁, 2005).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장애 연구(김외숙, 1991)에서 비용장애와 사회적 장애에서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를 보여 비용장애와 사회적 장애를 지각하는 정도는 중졸 이하집단이 가장 심하고, 교육정도가 높아질수록 장애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년후기 남녀의 여가제약 연구(박지수·박경란, 2009)에서도 중졸이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총 여가제약을 높게 지각하였고 비용적 제약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소영 외, 2005)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구조적 제약(시간제약, 경제적 제약 등)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정주부의 여가제약분석(정탁, 2005)에서도 총 여가제약과 시간적 제약에서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밝혀졌다.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적 제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이 많고 또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가보다는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 시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 것으로 시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교육수준과 여가제약과의 관계를 시간제약 및 비용제약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제약 인식이 높은 점에서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일치하나 비용제약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직업에 따라서도 여가제약 지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점은 동일하나 연구에 따라 직업분류방법이 상이하여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다른 점도 보인다. 도시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외숙, 1991)에서는 직업별로 비용장애에 대한 지각이 차이를 보여 생산·판매·서비스직 집단이 비용장애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전문·관리·기술직 집단이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세 이상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송원익,

2004)에서는 내재적 제약(시간부족, 일에 얽매임 등)과 구조적 제약(경제적 여유, 정보와 자원 등)에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 관리직과 사무직집단은 내재적 제약 수준이 높았고 사무직집단은 구조적 제약 수준이 높았다. 직장인들의 여가제약 분석(윤소영 외, 2005)에서도 직업에 따라 구조적 제약(시간제약, 경제적 제약, 정보와 자원 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무·행정관리직 근로자가 구조적 여가제약을 가장 많이 받고, 금융·경제기관 종사자는 구조적 여가제약을 가장 낮게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이 시간 및 경제적 제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이나 여가제약 요인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간과 경제적 제약을 기초로 한 여가제약 유형들이 이들 관련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혼취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연령, 교육수준, 직업 외에 취업자의 여가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5일근무 여부를 관련변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2004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11년부터 20인 미만의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는 취업자의 생활시간배분 및 여가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유선, 2011). 그러나 윤소영 등(2005)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5일근무 여부는 내적 제약, 대인적 제약 및 구조적 제약 모두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주5일근무 여부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를 밝힌 연구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주5일근무 여부가 여가제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여가제약에 따른 여가활동의 참여

여가활동을 참여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여가행동을 제한하는 힘이 여가제약이며, 여가제약은 개인의 수준에서 지각되는 심리적인 것으로, 여가제약과 여가활동참여는 전반적으로 부적관계를 보이는 것이 다수의 연구 결과(Alexandris & Carroll, 1997; Hubbard & Mannell, 2001; Alexandris, Tsorbatzoudis & Grouios, 2002; Alexandris, Kouthouris & Girgolas, 2007; Loucks-Atkinson & Mannell, 2007; Son, Mowen & Kerstetter, 2008; White, 2008; 김외숙, 1991; 홍성희 · 문숙재, 1991; 이후원, 1993; 홍성희 · 김성희, 1997; 박지수, 2007; 윤선아, 2007; 이영숙 · 박경란, 2009; 이인내, 2011)에서 보고되고 있다. 다만 여가제약과 여가활동참여의 관계는 여가제약유형이나 여가활동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김외숙(1991)은 도시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여가장애지각과 여가활동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가장애지각과 여가활동참여가 전반적으로 부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일활동은 시간장애와 개인적 장애를 제외한 다른 장애의 지각과 정적관계를 보임으로써 이들 장애가 증가할수록 참여도가 오히려 증가함을 밝혔다. 홍성희와 문숙재(1991)도 여가제약요인들(시간 · 비용 ·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조합하여 주부들을 유형화한 후 여가활동참여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개발적 및 사교적 여가활동은 여가시간 · 비용 · 공간에 모두 불만족할 때 가장 적게 참여하였으며, 모두 만족할 때 가장 많이 참여하여 만족, 불만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시간소일적 여가활동에는 비용과 공간에 불만족할 때 높은 참여도를 보이는 점을 밝혔다. 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후원(1993)의 연구에서도 여가장애요인은 여가활동참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간장애나 개인적 장애가 없을수록 운동 및 스포츠 활동에 더 많이 참

여하며 개인적 장애를 많이 지각할수록 오락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 사회적 장애가 없을수록 보다 활동적인 운동 및 스포츠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유형과 여가제약의 관계를 분석한 이인내(2011)도 스포츠활동은 대인적 제약과 편의적 제약에 정적관계를 보인 반면 환경적 제약에는 부적관계를 보이고, 야외 · 여행활동은 편의적 제약에서만 정적관계를 보이며, 취미활동은 환경적 제약에는 부적관계를 보이는데 비해 편의적 제약에는 정적관계를, 게임 · 오락활동은 환경적 제약에서만 정적관계를 보이는 점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하여 여가제약은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참여와 부적 관계를 갖지만 소극적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와는 오히려 정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제약이 존재할 경우 적극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극적 활동으로 소일하게 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여가제약과 여가활동참여와의 관계는 전반적인 관계와 함께 개별 여가제약유형이나 여가활동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에 따라서는 개별 여가활동을 대상으로 분석하거나 여가활동참여의 정도를 세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Alexandris와 Carroll(1997), Alexandris, Tsorbatzoudis와 Grouios (2002), 정원래,(2006), 황선환과 한승진(2012)은 스포츠활동에 대한 참여의 정도를 참여의 빈도, 강도 및 기간으로 세분하여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여가제약이 스포츠 참여 정도에 미치는 연구(정원래, 2006)에서 여가제약은 스포츠참여 빈도, 참여 기간, 참여 강도에 영향을 미쳤고, 황선환과 한승진(2012)의 연구에서도 여가제약과 스포츠활동의 참여 정도(참여 기간, 참여 빈도, 참여 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대 이후에는 여가제약을 여가제약협상을 통해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고 여가제약, 동

기, 협상 및 여가참가의 관계를 파악한 경험적 연구들(Hubbard & Mannell, 2001; Alexandris, Kouthouris & Girgolas, 2007; Loucks-Atkinson & Mannell, 2007; Son, Mowen & Kerstetter, 2008; White, 2008; 정원래, 2006; 고보숙, 2010; 황선환·한승진, 2012)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여가계약이 여가참가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 만 여가계약협상을 통해 여가참가의 수준이 증가 하는 점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여가계약은 여가활동참여를 감소 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정여 가활동에 대해서는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갖기 도 하며, 협상을 통해 극복 가능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가계약과 여가활동참여 의 관계 연구는 주로 여가계약 요소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현실세계에서는 다양한 여가계약요 소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여가계약요소 중 대표적인 시간 및 비용 에 초점을 맞추어 여가계약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이 인구사회학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유형에 따라 여가활동참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혼취업자의 여가계약유형은 어 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2] 기혼취업자의 여가계약유형에 따 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기혼취업자의 여가계약유형에 따 라 여가활동참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원 자료를 이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조사대상가 구의 10세 이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10분 간 격으로 구성된 시간일지(time diary)에 응답자가 자기기입방식(after-cody diary)으로 행동이 일어 난 순서대로 기록하는 방식이며 시간일지는 2일 동안 기입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의 기혼자 중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이고, 생활시간조사 당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던 비농가 취업자 6,738 명이다. 분석된 시간일지는 개인당 2부로서 남성 7,984부, 여성 5,492부이고 분석대상 행동은 ‘동 시행동’을 제외한 ‘주행동’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에 포함된 여가활동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활 동분류 중 대분류의 ‘참여 및 봉사활동’과 ‘교제 및 여가활동’에 속한 12항목의 중분류 활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부 항목을 조정하였다(<표 1> 참고).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사회조사 및 연구결과 에서 대표적인 제약요인으로 밝혀진 시간 및 비 용의 부족을 여가계약을 유형화하는 기준으로 설 정하고, 시간요인으로는 주당노동시간, 비용요인 으로는 개인월평균소득을 사용하였다. 주당노동 시간은 시간일지 조사 당시 ‘지난 1주일 동안 일 한 주업 및 부업 시간’이고, 개인월평균소득은 생 활시간조사에서 ‘없음(1점)’부터 ‘500만원 이상 (11점)’까지 50만원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문항 이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일차적으로 S+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생활시간자료와 가구원자료를 통합한 후 PWSA 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

〈표 1〉 여가활동분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본 연구
대분류	중분류	여가활동
참여 및 봉사활동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참여봉사활동
	참여활동	
	자원봉사	
교제 및 여가활동	교제활동	교제활동
	일반인의 학습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 이용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관람문화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스포츠 등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취미 등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기타여가활동
	기타여가관련행동	

〈표 2〉 분석대상자의 특성

변수	구분	단위: 빈도(%)	
		남(3,992)	여(2,746)
연령	20-29세	137(3.4)	121(4.4)
	30-39세	1,144(28.7)	804(29.3)
	40-49세	1,720(43.1)	1,217(44.3)
	50-59세	991(24.8)	604(22.0)
교육수준	중졸	452(11.3)	586(21.3)
	고졸	1,819(45.6)	1,417(51.6)
	대졸	1,511(37.9)	687(25.0)
	대학원	210(5.3)	56(2.0)
직업	관리자·전문가	956(23.9)	485(17.7)
	사무직	694(17.4)	419(15.3)
	서비스·판매직	645(16.2)	1,086(39.5)
	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	1,697(42.5)	756(27.5)
직장에서의 지위	임금근로자	2,755(69.0)	1,895(69.0)
	고용주	402(10.1)	113(4.1)
	자영자	822(20.6)	412(15.0)
	무급가족종사자	13(0.3)	326(11.9)
소득(단위: 만원)	없음	11(0.3)	290(10.6)
	100미만	232(5.8)	1,066(38.8)
	100~200미만	1,251(31.3)	972(35.4)
	200~300미만	1,287(32.2)	252(9.2)
	300이상	1,211(30.3)	166(6.0)
주당노동시간(단위: 시간)	평균(표준편차)	53.13(14.95)	46.05(18.34)
주5일근무 여부	시행	1,302(32.6)	824(30.0)
	비시행	2,690(67.4)	1,922(70.0)

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여가제약유형화를 위해 주당노동시간과 개인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가제약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 및 여가활동참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성별 차이를 반영하여 남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IV. 연구결과

1. 기혼취업자의 여가제약유형

군집분석의 기준이 되는 주당노동시간과 개인 월평균소득의 점수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남성의 경우 주당노동시간은 평균 53.13시간이며, 중앙값은 50시간이었다. 소득은 평균 6.59(6=250만원 미만, 7=300만원 미만)이고 중앙값은 6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주당노동시간 평균은 46.05시간, 중앙값 45시간이고, 소득

의 평균은 3.88(3=100만원 미만, 4=150만원 미만)이며, 중앙값은 4로 나타났다.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의 소득은 50만원 단위로 2.71점 낮고, 노동시간은 7.08시간 적었다.

이러한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기혼취업자의 여가제약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노동시간과 소득의 두 차원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고,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3> 노동시간과 소득 기초통계량

성별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남성	노동시간	7,984	53.13	14.95	50
	소득	7,984	6.59	2.22	6
여성	노동시간	5,492	46.05	18.34	45
	소득	5,492	3.88	1.98	4

* 단위: 시간

먼저 남성의 유형 1을 <표 3>에서 제시된 평균점수와 비교해 보면, 노동시간은 평균보다 9.94시간 더 길고 개인월평균소득은 평균보다 0.16 더 적다. 이것을 부호로 나타내면 “+ -”로 표시할 수 있어 “시간소득제약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7,984부의 분석대상일지 중 2,606부(32.6%)가 이 유형에 속한다.

<표 4> 여가제약유형별 빈도 및 표준화 점수

구분	유형	빈도	%	노동시간	소득	점수부호
남성	1	2,606	32.6	63.09	6.43	+ -
	2	628	7.9	84.93	6.40	+ -
	3	386	4.8	22.85	5.03	- -
	4	4,364	54.7	45.28	6.86	- +
여성	1	88	1.6	100.66	3.50	+ -
	2	1,252	22.8	67.65	3.88	+ 0
	3	1,084	19.7	20.23	2.92	- -
	4	3,068	55.9	44.80	4.23	- +

유형 2를 보면 노동시간은 평균보다 31.80시간 더 길고 소득은 평균보다 0.19 더 적다. 노동시간은 네 유형 중 가장 길어 평균보다 1.6배 많고 소득은 유형 1과 유사한 수준이다. 따라서 “시간+소득제약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는 7.9%가 속한다. 유형 1과 비교할 때 두 유형 모두 노동시간은 평균보다 길고 소득은 평균보다 적은 공통점이 있지만 유형 2의 노동시간이 유형 1에 비해 1.3배 많은 84.93시간으로 다른 모든 유형들보다 특히 많은 특징이 있다.

유형 3은 노동시간, 소득이 각각 평균점수보다 적으며 네 유형 중 노동시간과 소득이 각각 가장 적은 특징이 있으므로 “소득제약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이 차지하는 비율은 4.8%로 네 유형 가운데 가장 낮다.

마지막으로 유형 4의 노동시간은 평균보다 7.85시간 더 적고 네 유형 중 개인월평균소득이 평균보다 유일하게 높다. 따라서 이 유형을 “일반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분석대상자 중 54.7%가 이 유형에 속하여 네 유형 중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

여성의 유형 1을 평균점수와 비교해 보면, 노동시간은 100.66시간으로 평균보다 2.1배 높아 네 유형 중 특히 많고 소득은 평균보다 낮다. 따라서 이 유형을 “시간소득제약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1.6%로 네 유형 가운데 가장 적다.

유형 2의 노동시간은 67.65시간으로 평균보다 1.4배 높고 소득은 평균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유형을 “시간제약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는 22.8%를 차지한다.

유형 3은 노동시간과 소득이 모두 평균점수보다 적은 값을 보였다. 주당노동시간이 20.23시간으로 평균의 43.9%에 불과하고 개인월평균소득은 2.92(2=50만원 미만, 3=100만원 미만)로 네 유형 중 가장 적다. 이를 부호로 나타내면 “- -”로서 “소득제약형”으로 부를 수 있다. 전체 분석

대상자 중 19.7%가 이 유형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유형 4를 보면 노동시간은 평균보다 1.25시간 더 적고 소득은 평균보다 높다. 특히 소득이 4.22(4=150만원 미만, 5=200만원 미만)로 네 유형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유일하게 평균보다 높았다. 따라서 이 유형을 “일반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55.9%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았다.

이상과 같이 기혼취업자의 여가제약을 성별로 네 집단씩 유형화한 결과 여가제약유형 중 기혼취업자의 절반이상(남성 54.7%, 여성 55.9%)이 노동시간은 평균보다 적고 소득은 평균보다 많은 일반형에 속했다. 노동시간은 평균보다 많고 소득은 평균보다 적은 시간소득제약형은 남성의 경우 32.6%의 분포를 차지하는데 비해 여성은 1.6%의 극히 낮은 분포를 보이고, 노동시간과 소득이 네 유형 중 가장 적은 특징이 있는 소득제약형은 남성과 여성의 분포가 각각 4.8%, 19.7%를 보여 여성의 분포가 14.9% 더 높았다. 또한 남성은 노동시간이 1.5배 많고 소득이 평균보다 0.19 더 적은 시간+소득제약형이 나타난 반면 여성은 노동시간이 평균보다 1.4배 많고 소득이 평균과 동일한 시간제약형이 나타난 차이가 있었다.

<표 5>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4개 유형이 여가제약 변수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ANOVA 분석을 통해 각 변수에 대해 군집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남성의 경우 노동시간은 네 유형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은 시간소득제약형과 시간+소득제약형 사이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이들 유형과 다른 두 유형들은 서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노동시간과 소득 모두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여가제약유형별 세 차원점수의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

					(단위: 분)
구분	변수	유형	평균	표준편차	F
남성	노동시간	시간소득제약형	63.10b	5.57	15110.349***
		시간+소득제약형	84.93a	9.32	
		소득제약형	22.85d	8.67	
		일반형	45.28c	4.85	
	소득	시간소득제약형	6.43b	2.09	93.277***
		시간+소득제약형	6.40b	2.18	
소득제약형		5.03c	2.35		
여성	노동시간	시간소득제약형	100.66a	15.66	10598.301***
		시간제약형	67.65b	7.93	
		소득제약형	20.23d	8.00	
		일반형	44.80c	5.78	
	소득	시간소득제약형	3.50c	2.47	124.772***
		시간제약형	3.88b	1.89	
		소득제약형	2.92d	1.70	
		일반형	4.23a	1.99	

***p<.001

2. 기혼취업자의 여가제약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혼취업자의 여가제약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교육수준, 직업, 주5일근무 변수를 사용하여 여가제약유형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혼취업남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여가제약유형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 주5일근무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을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일반형의 분포가 5할대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시간+소득제약형(8.6%)과 소득제약형(6.9%)의 비중이 높았고 시간소득제약형(29.8%)의 비중은 낮았다. 시간소득제약형의 경우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은 30%대의 분포를 보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일반형에 속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시간소득제약형과 소득제약형에 속하는 분포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간소득제약형의 경우 고졸집단(36.1%)이 중졸집단(33.8%)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지만 두 집단의 1/3이상이 이 유형에 속하며, 대졸집단과 대학원집단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직업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보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집단 중에서는 일반형에 속하는 비중이 7할대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관리자·전문가(62.9%), 기능원·장치·단순노무(51.1%), 서비스·판매직(34.4%) 순으로 일반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무직의 경우 일반형에 속하는 비중이 가장 높는데 비해 나머지 유형에서는 모두 낮은 분포를 보였고, 서비스·판매직은 일반형에 속하는 비중이 가장 낮는데 비해 시간소득제약형

과 시간+소득계약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은 소득계약형(6.5%)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5일근무 여부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보면 주5일근무 시행 집단의 경우 79.0%가 일반형에 속하는데 비하여 비시행 집단은 42.9%만 일반형에 속하여 주5일근무 여부에 따라 일반형에 분포된 비율이 큰 차이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시간소득계약형, 시간+소득계약형 및 소득계약형에서는 일반형과는 반대로 주 5일근무 시행 집단이 비시행집단보다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5일근무 비시행 집단이 시행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양한 여가제약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혼취업여성의 여가계약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연령, 교육수준, 직업, 주5일근무 여부의 모든 변수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연령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소득계약형과 시간계약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비해 일반형의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50대는 소득계약형(23.8%)의 분포가 다른 집단보다 특히 높았다.

교육수준을 보면 일반형의 비율은 중졸, 고졸, 대졸 수준으로 높아지다가 대학원졸 집단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계약형에서는 대학원졸 집단의 비중이 다른 집단들보다 높았고 시간소득계약형과 시간계약형에서는 중졸 집단의 비율이 다른 집단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유형별 직업분포를 보면 일반형의 비율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무직(77.1%), 관리자·전문가(66.0%), 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55.85), 서비스·판매직(43.2%) 순으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사무직의 경우 일반형의 분포가 특히 높은

<표 6> 남성의 여가계약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빈도, %)

변수	구분	시간소득 계약형 (N=2,606)	시간+소득 계약형 (N=628)	소득 계약형 (N=386)	일반형 (N=4,364)	X ²
연령	20대	98(35.8)	18(6.6)	14(5.1)	144(52.6)	45.941**
	30대	806(35.2)	188(8.2)	72(3.1)	1,222(53.4)	
	40대	1,112(32.3)	252(7.3)	164(4.8)	1,912(55.6)	
	50대	590(29.8)	170(8.6)	136(6.9)	1,086(54.8)	
교육수준	중졸	306(33.8)	90(10.0)	84(9.3)	424(46.9)	210.639***
	고졸	1,314(36.1)	358(9.8)	176(4.8)	1,790(49.2)	
	대졸	892(29.5)	162(5.4)	112(3.7)	1,856(61.4)	
	대학원	94(22.4)	18(4.3)	14(3.3)	294(70.0)	
직업	관리자·전문가	534(27.9)	88(4.6)	88(4.6)	1,202(62.9)	600.632***
	사무직	334(24.1)	46(3.3)	24(1.7)	984(70.9)	
	서비스·판매직	552(42.8)	244(18.9)	52(4.0)	442(34.3)	
	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	1,186(34.9)	250(7.4)	222(6.5)	1,736(51.1)	
주5일 근무 여부	시행	438(16.8)	42(1.6)	68(2.6)	2,056(79.0)	945.239***
	비시행	2,168(40.3)	586(10.9)	318(5.9)	2,308(42.9)	

p<.01, *p<.001

반면 그 외 유형들에서는 다른 직업에 비해 낮았다. 서비스·판매직은 다른 직업에 비해 일반형의 분포는 가장 낮는데 비해 시간제약형과 시간소득제약형에서는 다른 직업에 비해 더 높았다. 서비스·판매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39.5%인데 비하여 시간소득형에서는 84.1%이고 시간제약형에서는 62.1%인 점에서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의 여가제약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제약형에서는 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의 분포가 가장 높았다.

주5일근무 여부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보면 주5일근무 시행 집단의 경우 남성과 동일하게 73.8%가 일반형에 속하는데 비하여 비시행 집단은 48.2%만 일반형에 속하여 주5일근무 여부에 따라 일반형에 분포된 비율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시간소득제약형과 시간제약형에서는 일반형과는 반대로 주5일근무 시행 집단이 비시행 집단

보다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주5일근무 비시행 집단이 시행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양한 여가제약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혼취업자의 여가제약유형별 여가활동참여의 차이

기혼취업자의 여가제약유형에 따른 여가활동참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여가활동참여를 여가활동별 주당 평균시간과 행위자비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표 8>에서 기혼취업남성의 여가제약유형별 여가활동 평균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종교활동과 관람문화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활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차이가 밝혀진 여가활동 중 기타여가활동을 제외한 모든 여가활동

<표 7> 여성의 여가제약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빈도, %)

변수	구분	시간소득 제약형 (N=88)	시간 제약형 (N=1,252)	소득 제약형 (N=1,084)	일반형 (N=3,068)	X ²
연령	20대	0(0.0)	34(14.0)	40(16.5)	168(69.4)	116.042***
	30대	18(1.1)	272(16.9)	316(19.6)	1,002(62.3)	
	40대	40(1.6)	618(25.4)	440(18.1)	1,336(54.9)	
	50대	30(2.5)	328(27.2)	288(23.8)	562(46.5)	
교육수준	중졸	26(2.2)	358(30.5)	224(19.1)	564(48.1)	163.184***
	고졸	54(1.9)	708(25.0)	538(19.0)	1,534(54.1)	
	대졸	8(0.6)	172(12.5)	294(21.4)	900(65.5)	
	대학원	0(0.0)	14(12.5)	28(25.0)	70(62.5)	
직업	관리자·전문가	4(0.4)	114(11.8)	212(21.9)	640(66.0)	559.451***
	사무직	2(0.2)	80(9.5)	110(13.1)	646(77.1)	
	서비스·판매직	74(3.4)	778(35.8)	382(17.6)	938(43.2)	
	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	8(0.5)	280(18.5)	380(25.1)	844(55.8)	
주5일 근무 여부	시행	2(0.1)	114(6.9)	316(19.2)	1,216(73.8)	428.439***
	비시행	86(2.2)	1,138(29.6)	768(20.0)	1,852(48.2)	

***p<.001

동에서 소득계약형의 평균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여가활동에서는 소득계약형과 일반형의 시간이 동일하게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가계약유형별로 전체여가시간 중 미디어 이용이 차지하는 시간은 차이를 보였지만 비중은 47.8-48.9%로 절반 정도되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시간소득계약형과 시간+소득계약형은 유형별 차이를 나타낸 활동 중 스포츠 등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서 평균시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유형의 여가활동 참여시간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등은 네 유형의 평균시간이 각각 다른 유일한 활

동으로 밝혀졌는데 소득계약형이 시간+소득계약형의 1.5배로 나타났다.

여가계약유형별 여가활동 행위자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종교활동과 관람문화활동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그 외 활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밝혀졌다. 차이가 밝혀진 모든 여가활동에서 소득계약형의 행위자비율이 가장 높았고, 참여봉사활동과 취미 등, 기타여가활동은 시간소득계약형의 행위자비율이 낮았고,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 이용, 스포츠 등은 시간+소득계약형에서, 교제활동은 일반형에서 행위자비율이 각각 낮았다. 여가

〈표 8〉 남성의 여가계약유형에 따른 여가활동별 평균시간과 비율

구분		시간소득 계약형 (N=2,606)	시간+소득 계약형 (N=628)	소득 계약형 (N=386)	일반형 (N=4,364)	F / X ²
평균 시간 ¹⁾	참여봉사활동	1b(0.4)	1b(0.5)	2a(0.5)	1b(0.4)	2.761*
	교제활동	42b(18.6)	42b(20.1)	52a(14.8)	43b(15.5)	3.566*
	일반인의 학습	2c(0.9)	2c(1.0)	9a(2.6)	5b(1.8)	8.853***
	미디어 이용	108c(47.8)	101c(48.2)	171a(48.6)	136b(48.9)	75.112***
	종교활동	6(2.7)	5(2.4)	10(2.8)	7(2.5)	1.771
	관람문화활동	1(0.4)	1(0.5)	1(0.3)	2(0.7)	1.862
	스포츠 등	25c(11.1)	18d(8.6)	47a(13.4)	37b(13.3)	40.439***
	취미 등	40bc(17.7)	38c(18.2)	58a(16.5)	45b(16.2)	13.589***
	기타여가활동	1b(0.4)	1b(0.5)	2a(0.5)	2a(0.7)	8.893***
계	226c(100.0)	209d(100.0)	352a(100.0)	278b(100.0)	129.524***	
행위자 비율 ²⁾	참여봉사활동	11(0.4)	8(1.3)	9(2.3)	39(0.9)	17.361**
	교제활동	1,879(72.1)	459(73.1)	292(75.6)	3,055(70.0)	8.895*
	일반인의 학습	71(2.7)	15(2.4)	18(4.7)	194(4.4)	17.631**
	미디어 이용	2,267(87.0)	528(84.1)	357(92.5)	4,025(92.2)	76.662***
	종교활동	131(5.0)	29(4.6)	25(6.5)	220(5.0)	1.870
	관람문화활동	27(1.0)	7(1.1)	3(0.8)	66(1.5)	3.963
	스포츠 등	724(27.8)	144(22.9)	167(43.3)	1,675(38.4)	131.401***
	취미 등	1,669(64.0)	404(64.3)	277(71.8)	2,826(64.8)	8.918*
	기타여가활동	128(4.9)	33(5.3)	33(8.5)	342(7.8)	26.512***

*p<.05, **p<.01, ***p<.001

1) 단위: 분, %

2) 단위: 빈도, %

제약유형별 행위자비용의 차이를 많이 보이는 여가활동은 일반인의 학습과 스포츠 등으로 소득제약형이 시간+소득제약형의 각각 1.95배, 1.9배로 나타났다.

기혼취업여성의 여가제약유형별 여가활동참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달리 종교활동참여에도 차이를 보여 관람문화활동을 제외한 모든 여가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차이가 나타난 여가활동 중 교제활동과 취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여가활동에서는 소득제약형의 평균시간이 가장 많았다. 일반인의 학습, 종교활동 및

스포츠 등의 경우 제약유형별 평균시간의 차이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에서 미디어 이용시간이 많은데 소득제약형은 평균 124분으로 시간소득제약형의 70분보다 1.5배 이상으로 특히 많았다. 시간소득제약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미디어 이용시간은 가장 적는데 비해 교제활동시간은 가장 많은 특징을 보였다.

여성의 여가제약유형별 여가활동참여 행위자비용에서도 평균시간에서와 같이 관람문화활동을 제외한 모든 여가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차이가 나타난 모든 여가활동에서 소득제

〈표 9〉 여성의 여가제약유형에 여가활동별 평균시간과 비율

구분		시간소득 제약형 (N=88)	시간 제약형 (N=1,252)	소득 제약형 (N=1,084)	일반형 (N=3,068)	F / X ²
평균 시간 ¹⁾	참여봉사활동	0(0.0)	1(0.6)	2(0.8)	1(0.5)	4.261**
	교제활동	50a(29.7)	40b(26.0)	48a(18.5)	39b(20.3)	10.065***
	일반인의 학습	0b(0.0)	1b(0.6)	6a(2.3)	3ab(1.6)	9.536***
	미디어 이용	70c(41.7)	72c(46.9)	124a(47.8)	96b(50.0)	80.365***
	종교활동	8b(4.8)	7b(4.5)	23a(8.9)	12b(6.3)	20.498***
	관람문화활동	0(0.0)	1(0.6)	2(0.8)	1(0.5)	.769
	스포츠 등	14b(8.3)	12b(7.8)	25a(9.7)	18b(9.4)	19.296***
	취미 등	26a(15.5)	19b(12.3)	26a(10.0)	20ab(10.4)	9.138***
	기타여가활동	0b(0.0)	1ab(0.6)	3a(1.2)	2ab(1.0)	4.362**
계	168c(100.0)	154c(100.0)	259a(100.0)	192b(100.0)	141.931***	
행위자 비용 ²⁾	참여봉사활동	1(1.1)	11(0.9)	33(3.0)	26(0.8)	32.528***
	교제활동	75(85.2)	885(70.7)	798(73.6)	2,201(71.7)	10.214*
	일반인의 학습	0(0.0)	26(2.1)	50(4.6)	90(2.9)	15.996**
	미디어 이용	68(77.3)	949(75.8)	973(89.8)	2,633(85.8)	100.730***
	종교활동	4(4.5)	80(6.4)	183(16.9)	286(9.3)	79.135***
	관람문화활동	0(0.0)	15(1.2)	15(1.4)	37(1.2)	1.338
	스포츠 등	19(21.6)	187(14.9)	322(29.7)	690(22.5)	73.817***
	취미 등	42(47.7)	560(44.7)	537(49.5)	1,356(44.2)	9.695*
기타여가활동	1(1.1)	40(3.2)	89(8.2)	157(5.1)	32.967***	

*p<.05, **p<.01, ***p<.001

1) 단위: 분, %

2) 단위: 빈도, %

약형의 행위자비율이 가장 높았고, 참여봉사활동과 취미 등은 일반형에서 행위자비율이 가장 낮았고, 교제활동과 미디어 이용 및 스포츠 등은 시간제약형에서, 일반인의 학습과 종교활동 및 기타여가활동은 시간소득제약형에서 행위자비율이 가장 낮았다. 일반인의 학습, 종교활동, 스포츠 등의 경우 유형별 행위자비율에 차이가 특히 많았다.

V. 결론

본 연구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중 20세 이상 60세 미만 기혼취업자의 자료를 사용하여 여가제약을 유형화하고, 여가제약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 후 여가제약유형에 따라 여가활동참여의 평균시간 및 행위자비율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다.

첫째, 주당노동시간과 개인소득을 축으로 기혼 취업자의 여가제약을 유형화하면 남성은 시간소득제약형, 시간⁺소득제약형, 소득제약형, 일반형으로 분류되고 여성은 시간소득제약형, 시간제약형, 소득제약형,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시간소득제약형은 노동시간이 평균보다 많고 소득은 평균보다 적으며, 소득제약형은 노동시간과 소득이 모두 평균보다 적고, 일반형은 노동시간은 평균보다 적고 소득은 평균보다 많은 특징이 있다. 남성의 시간⁺소득제약형은 평균노동시간이 주당 84.93시간으로 네 유형 중 특히 길며 평균보다 1.6배 많고 소득은 평균보다 적은 특징이 있고, 여성의 시간제약형은 노동시간은 평균보다 1.4배 많고 소득은 평균과 동일하다. 네 유형 중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은 남성(54.7%)과 여성(55.9%) 동일하게 일반형이다.

둘째, 여가제약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의 경우 시간소득제약형은 연령대가 낮을

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고졸집단의 분포가 높고, 서비스·판매직 및 주5일근무 비시행 집단의 분포가 높다. 시간⁺소득제약형은 교육수준이 높은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서비스·판매직, 주5일근무 비시행 집단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소득제약형의 경우 학력이 높은 취업자의 비중이 적고, 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 주5일근무 비시행 집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형에 속하는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취업자가 많고, 사무직, 주5일근무 시행 집단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시간소득제약형은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많으며, 서비스·판매직과 주5일근무 비시행 집단이 높은 분포를 보인다. 시간제약형도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높고 학력이 낮은 취업자가 많으며, 서비스·판매직과 주5일근무 비시행 집단이 높은 분포를 보인다. 소득제약형에 속하는 집단은 50대, 대학원 졸업 집단, 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의 분포가 높은 특징이 있다. 일반형은 연령이 적을수록 그 분포가 높고, 대졸집단, 사무직종사자 및 주5일근무 시행 집단이 높은 비중을 보인다.

셋째, 여가제약유형별 여가활동참여의 차이를 평균시간과 행위자비율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종교활동과 관람문화활동의 제외한 활동(참여봉사활동, 교제활동,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 이용, 스포츠 등, 취미 등, 기타여가활동)에서 여가제약유형에 따라 여가참여에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소득제약형의 여가활동참여도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 높고, 그 다음으로 일반형의 참여도가 높으며, 시간소득제약형과 시간⁺소득제약형은 유사하게 낮은 참여도를 보인다.

여성들은 관람문화활동을 제외한 여가활동에서 여가제약유형에 따른 여가활동참여의 차이가 있다. 소득제약형의 여가활동참여도가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이는 점은 남성과 동일하고, 시간소득제약형과 시간제약형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다른 유형들보다 낮다. 남성은 일반인의 학습과 스포츠 등의 참여에서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비하여 여성은 전반적으로 볼 때 제약유형별 활동참여의 차이가 남성보다 뚜렷하지 않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일반형에 속하는데 이 유형의 노동시간은 남성 45.28시간, 여성 44.80시간으로 남녀 모두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의 10% 이상을 초과하고, 시간소득제약형과 시간·소득제약형, 시간제약형은 주당노동시간이 63~101시간에 이르고 있어 소득제약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은 모두 여가활동참여의 전제가 되는 여가시간이 부족한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혼취업자의 여가제약유형별 개인월평균소득을 보면 남성은 5.03~6.86, 여성은 2.92~4.23으로 2.11~2.63의 차이를 보여 100만원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9%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통계치가 있는 28개국 중 1위로서 평균(15%)의 2.6배 수준인 점에서도 성별 소득격차가 큰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성별 소득불균형의 완화 및 양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성 중에서는 시간·소득제약형과 시간·소득제약형이 소득제약형과 일반형에 비해 여가활동참여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여성도 시간·소득제약형과 시간제약형의 여가활동참여도가 낮아 시간과 소득이라는 두 가지 제약을 동시에 갖거나 시간제약을 두드러지게 갖는 유형의 여가생활이 열악한 점을 알 수 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저학력자와 서비스·판매직종사자, 주5일근무 비시행 집단의 여가생활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주당노동시간이 10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소득제약형은 시간제약의 심각성이 다른 어느 유형보다 두드러지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가제약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여가정책과 함께 특별히 이들 취약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과 경제적 제약을 덜 받는 직장내 여가공간·시설·프로그램의 운영,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여가제약이 객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의 수준에서 지각되는 심리적인 것이며, 협상이나 극복이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가제약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함께 개인 및 가족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 개인 및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여가제약 극복전략으로는 여가활동을 미리 계획하고 체계화하여 낭비되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여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간관리 및 금전관리전략과 함께 희망했던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유사한 종류의 대안여가활동을 대체하려는 노력과 동일한 여가활동이라도 참여시간 및 장소를 대체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다양한 여가제약 극복전략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여가교육이 가정교육,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 등 여러 차원에서 필요하다.

넷째, 소득제약형은 노동시간이 가장 적기 때문에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여가활동참여도가 전반적으로는 높은 수준이지만 주로 참여하는 활동이 미디어 이용, 교제활동, 취미 등이고 참여봉사활동, 학습 및 스포츠 등에 대한 참여도는 상당히 낮다. 많은 여가시간을 미디어 이용과 같은 소극적 활동에 주로 사용하기보다 여가활동의 적극적 기능을 갖는 참여봉사활동, 학습 및 스포츠 등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이 적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같은 여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소외계층의 여가생활을 돕기 위한 문화, 스포츠, 여행 바우처 제도 등이 있으나 지원대상이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과 더불어 바우처 제도의 다양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시간과 소득이라는 여가제약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여가제약을 유형화하고 여가제약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여가제약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도의 차이를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노동시간과 개인소득 대신 가사노동시간을 포함한 총 노동시간과 가계소득을 이용한 여가제약 유형화 연구와 다양한 여가제약 요인들을 추가한 심층적 여가제약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여가제약의 개념에서 중요한 점이 개인의 지각이라는 점에서 여가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객관적 상황과 개인의 인식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여가활동의 특성에 따라 제약요인의 효과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특정활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후속과제로 제안한다. 또한 연구자료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 프랑스 통계청(INSEE)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와 같이 활동별 주관적 복지감 항목이 추가되어 여가제약과 여가활동참여, 활동별 주관적 복지감이 종합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자료가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의 Database에 통합된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의 국제비교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경제투데이(2010). 서울 직장인 10명중 6명 야근 시달려.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00611160646940&ts=40608>.
- 2) 고동우(2007). 여가학의 이해. 서울 : 세림출판.
- 3) 고보숙(2010).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와 여가제약 협상모델 연구: 동적·정적 여가활동 비교.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김경식·황선환·원도연(2008). 여가제약 협상 전략 척도의 개발과 적용. 한국체육학회지, 47(3), 265-376.
- 5) 김성희·이철원(2003). 도시근로자의 여가동기에 따른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3), 391-400.
- 6) 김유선(2011).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산업노동연구, 17(1), 37-70.
- 7)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김외숙(2008). 여가시간 결정요인의 성차 분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 46권, 267-284.
- 9) 김외숙·이기춘(1993).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장애지각과 여가활동참여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208-218.
- 10) 김외숙·한경미(2010). 여가관리.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11)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12) 박지수·박경란(2009). 중년후기 성인이 지각하는 여가제약 및 여가충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3), 689-703.
- 13) 박형석(2011). 시간적/금전적 여가제약요인 인식 정도에 따른 여가만족도 및 여가제약 협상전략의 차이.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백주하(2011).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제약이 여가제약협상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5) 송원익(2004). 도시근로자의 여가참여형태 및 제약이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보고서」.
- 17) 윤선아(2007). 간호사의 여가참여와 여가제약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윤소영·문숙재·유수현(2005). 직장인들의 여가제약이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1), 59-73.
 - 19) 윤소영·차경옥(2004). 여가인식, 활동유형 및 여가제약의 세대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97-107.
 - 20) 이석훈·김재운(2012). 초등학생 방과후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른 제약인식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466-474.
 - 21) 이승구(2002). 레저스포츠 참여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6(1), 119-133.
 - 22) 이영숙·박경란(2009). 노인의 여가제약, 여가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1-12.
 - 23) 이유리·박미석(2006).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여가제약, 여가동기, 여가참여의 관계: 구조방정식 모형 구축을 통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1-30.
 - 24) 이인내(2011).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제약 및 학교생활 만족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이정연(1997). 여가활동이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6) 이준우·송은일·송성섭(2011). 한국판 여가제약 협상 전략 척도의 반응범주 및 문항 적합도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5(2), 151-162.
 - 27) 이현아·이기영·김외숙(1999). 부부의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및 여가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37-155.
 - 28) 이후원(1993). 여가활동참여유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 서울시내 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9) 이훈·정철·정란수·이승구·정우철(2004). 여가활동과 제약요인 구조모형: PPA와 여가제약이론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6(2), 29-48.
 - 30) 원형중(1992). 레크레이션: 여가기능척도의 개발연구. 92국체스포츠 학술대회 자료집, 491-497.
 - 31) 전태준·이철원(2003). 도시 여성근로자의 여가제약형태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2(4), 411-420.
 - 32) 정원래(2006). 직장인의 여가제약이 스포츠참가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3) 정탁(2005). 가정주부의 여가활동참여 및 제약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4) 진규태·김우성(2008). 대도시 중학생의 여가제약과 스포츠 활동 참가 및 여가만족의 관계. 스포츠과학논문집, 20, 89-102.
 - 35) 채화영·김주희·이기영(2011).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유형화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129-146.
 - 36) 최성훈(2010).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직장인들의 여가동기와 여가제약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 협상전략 분석. 체육과학연구, 21(1), 997-1010.
 - 37) 통계청(2012). 2011년 「사회조사보고서」.
 - 38) 홍성희·김성희(1997). 노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53-267.
 - 39) 홍성희·문숙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0), 153-174.
 - 40) 황선환(2009).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여가참가의 관계: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 참가자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20(3), 499-506.
 - 41) 황선환·서희진(2009).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진지한 여가의 관계. 체육과학연구, 20(2), 298-307.
 - 42) 황선환·한승진(2012). 여가스포츠활동 유형

- 별 여가제약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 (9), 422-433.
- 43) Alexandris, K. & Carroll, B.(1997). Demographic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constraints on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Results from a study in Greece. *Leisure Studies*, 16(2), 107-125.
- 44) Alexandris, K., Kouthouris, C., & Girgolas, G.(2007).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s among motivation negotiation and alpine skiing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9(4), 648-667.
- 45) Alexandris, D., Tsobatzoudis, C., & Grouiso, G.(2002). Perceived constraints on recreational participation: Investigating their relationship with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3), 233-252.
- 46) Crawford, W. D. & Godbey, G.(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2), 119-127.
- 47) Crawford, D., Jackson, E. L. & Godbey, G.(1991). A hierarchie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309-320.
- 48) Hubbard, J. & Mannell, R. C.(2001).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proc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s*, 23, 145-163.
- 49) ILO(2007). Green jobs: Climate change in the world of work, 60(8).
- 50) Iso-Ahola, S. E. & Mannell, R. C. (1985). Social and psychological constraint on leisure. In Wade, M. G.(Ed.). *Constraints on Leisure*.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 51) Jackson, E. L.(1988). Leisure constraints: A survey of past research. *Leisure Sciences*, 10, 203-215.
- 52) Jackson, E. L.(1990). Variations in the desire to begin a leisure activity: Evidence of antecedent constrai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 55-70.
- 53) Jackson, E. L.(2000). Will research on leisure constraints still be relevant in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2(1), 62-68.
- 54) Jackson, E. L., Crawford, D. W. & Godbey, G.(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5, 1-11.
- 55) Jackson, E. L., & Dunn, E.(1988). Integrating ceasing participation with other aspects of leisure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 31-45.
- 56) Jackson, E. L., & Rucks, V. C.(1995).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by junior-high and high-school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1), 85-105.
- 57) Jun, J. & Kyle, G.T.(2011). The effect of identity conflict/facilitation on the experience of constraints to leisure and constraint negoti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3(2), 176.
- 58) Kerestter, D.L., Mowen, A.J., & Son, J.S.(2008). Do age and gender matter in the constraint negotiation of phisically active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0(2), 267.
- 59) Leitner, M. J., Leitner, S. F.(1985). *Leisure in later life: A source book for the provision of recreational services for elders*, New York: Haworth Press.
- 60) Lewin, K.(1951).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s*. New York: Harper.

- 61) Loucks-Atkinson, A. & Mannell, R. C. (2007). Role of self-efficacy in the constraints negotiation process: The case of individuals with fibromyalgia syndrome. *Leisure Sciences*, 29, 19-36.
- 62) Son, J. S., Mowen, A. J., & Kerstetter, D. L.(2008). Testing alternative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model: An extension of Hubbard and Mannell's study. *Leisure Science*, 30, 198-216.
- 63) White, D.(2008). A structur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in outdoor recreation. *Leisure Science*, 30, 342-359.
- 64) OECD(2008). *OECD Factbook 2008*.
- 65) OECD(2011). *OECD Factbook 2011-2012*.

- 투 고 일 : 2013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1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2월 21일